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처음 10년을 돌아보며

이철호 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2-13)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처음 10년을 돌아보며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직 30년을 마무리 하면서 저는 정년퇴임 기념집을 영어로 출판했습니다. Food Research Archives of Cheryl-Ho Lee, Korea University. 영어로 쓴 이유는 나의 30년간 연구 교육 생활의 주제가 한국음식의 역사성과 과학성을 밝혀 세계에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념집 100여권을 해외에 있는 식품학자와 지인들에게 증정했습니다.

2010년 정년퇴임을 하면서 저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동안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과 도움을 조금이나마 되돌려 주는 삶을 살기 위해 아내와 뜻을 모아 사재 1억원을 출연금으로 기부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입니다. 재단의 설립 목적은 앞으로 예견되는 세계 식량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알리고 특히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식품산업 지도자들이 호응해 주었고, 특히 저와 30년 지기로 산학협동의 모범을 보인 대선 제분 박관회 회장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우리나라 주요 식품 대기업 CEO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만들어 졌습니다. 재단의 이사는 매년 일정금액의 후원금을 재단에 기부하여 재단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식품산업이 식량공급의 주체로서 이 나라의 식량안보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재단이 한 일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식량의 반(半)도 생산하지 못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이 나라의 취약한 식량사정에도 불구하고 낭비하고 불신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침 퇴임 후 잠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식품안전긴급대응사업(FSER) 자문관으로 로마에서 근무하는 동안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하여 재단의 사업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재단 설립 이듬해부터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을 시작하여 식량 생산을 늘리고 낭비를 줄이는 범국가적 노력을 호소하고, 대통령부터 어린 학생까지 각자의 할 일을 정해 실천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세계 식량문제와

우리나라의 식량사정에 관한 자료들을 올리고, 식량자급실천운동의 필요성과 진행사항을
게시하였습니다.

2012년 소설 ‘식량전쟁’을 저술하여 세계 식량위기의 실체와 어두운 미래 전망을 알렸고,
암울한 미래에 세계인을 살려내는 통일한국의 시대적 사명을 예언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염원과 원론적인 구호는 범람하였으나 실제로 통일이 되었을 때 가장 시급한 식량 수급과
배분에 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었으므로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2012)’를
출판하고, 통일미 120만 톤의 항시 비축과 저소득층에 대한 쌀 무상지원을 남한에서부터
먼저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책은 영어로도 출판되어(Korea Unification and Food
Security, 2015)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2014)’을 출판해 5년 내에 식량자급률 60%, 쌀의 완전자급, 식용콩 50%
자급, 조사료 50% 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식량문제는 생산이나 공급만을 늘려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인식
과 행동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으로 식품에 대한 올바른 국민교육에 재단은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첫째로 언론과 인터넷 매체의 식품에 대한 오해와 불필요한 불안감 확산을
막기 위해 식량안보시리즈 ‘나트륨, 건강 그리고 맛(2014)’, ‘건강 지킴이 보리의 재발견
(2015)’, ‘GMO 바로알기(2015)’, ‘쌀의 혁명(2015)’, ‘식량낭비 줄이기(2016)’, ‘목소리와
견해: 왜 생명공학인가?(2016)’, ‘식량생산 제고를 위한 신육종기술(2017)’, ‘21세기 구원
투수 고구마(2017)’, ‘4차산업혁명과 식량산업(2018)’, ‘Yes to GMOs(2018)’, ‘알기쉬운 방
사능·방사선 & 식품안전(2020)’ 등을 출판했습니다.

특히 식품산업 신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몰이해와 두려움,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일
부 시민운동가들과 유기농 식품업자들의 집요한 반대운동이 국가 식량 수급과 식품산업
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식품조미료

MSG 불매운동으로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던 우리나라 조미료산업이 무너졌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세대가 사용할 중요한 식품저장기술인 방사선 조사기술에 대해 일부 소비자운동가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여 조사식품표시가 확대됨에 따라 이 기술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신기술로 만든 신식품종(GMO)에 대한 반과학적인 허위선전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생명공학 신식품종의 유용성과 안전성을 교육 홍보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으며, GMO 반대운동단체가 요구하는 생명공학(BE)식품 표시확대로 발생할 식품대란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식량은 국민이 매일 먹어야 하는 필수불가결의 물질이므로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관되게 운영되어야 하나, 정권마다 흔들리고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로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2017)’ 연구를 수행해 우리나라 식량정책의 흐름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간 필요한 곡물 약 2천만 톤 중 쌀 400만 톤을 제외한 다른 곡물 거의 전량을 외국에 의존하면서도 세계 곡물시장에 대해 무심하고 축적된 지식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세계 곡물시장과 한국의 식량안보(2018)’를 출판했습니다.

재단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식량비축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우리의 식량비축 능력을 점검하고, 특히 민간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식량비축 능력과 현황을 조사하고, 양곡 비축비용을 산출하고, 식량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요셉의 지혜, 한반도 식량비축계획(2019)’을 출판했습니다. 재단 설립 초기에 제3회 식량안보세미나로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기능 - 현황과 전망’을 개최한 이후 9년 만에 다시 ‘식품산업의 식량안보기능’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물 ‘식품산업과 식량안보(2019)’를 출판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10년 동안 24회의 식량안보세미나를 개최했으며, 19회의 전문가 초청 식량안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13년 6월 영국의 환경운동가 마크라이너스(Mark Lynas)를 초청하여 그가 생명공학작물 전도사로 전향한 사연을 들었고, 2017년 9월에는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로버츠(Sir Richard J. Roberts) 교수를 초청하여 한림원 워크숍 ‘GMO-노벨수상자에게 묻다’와 고려대학교 초청강연 ‘노벨상으로 가는 길’을 개최했습니다.

2019년 말부터 재단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킹과 협력하여 ‘식량낭비줄이기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식량의 생산, 저장, 가공, 유통, 소비의 식량체인 전 과정에 관여하는 주요 인사 30여분으로 국민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단기 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식량낭비를 줄이기 위해 온 국민이 각자 할 일을 정해 SNS에 공개하는 ‘식량낭비줄이기 나의액션’ 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식량낭비를 현재의 반으로 줄여 식량자급률을 15%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재단의 운영은 많은 분들의 성원과 협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재단 이사로 변함없이 협력해 주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품대기업의 최고경영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라사랑이 이 나라를 배고픈 사람이 없는 안정되고 살기 좋은 나라, 후세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재단의 처음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세모에, 광릉숲 솔개마을에서
溯丁(소정) 이철호 씀